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영향 변인

정진자*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임명희

우석대학교 대학원졸업

《요약》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의 차이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북지역 대학생 109명(장애대학생 39명, 일반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장애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대학생이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진로성숙도에서 일반대학생에 비해 장애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제어 : 장애대학생,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진로성숙

1. 서론

1. 연구의 의의

최근의 특수교육은 완전통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그 축이 변화였으며, 학생의 욕구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정부중합발전 2차 5개년 계획안이나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1995년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시행이나 활성화 그리고 장애인 재활 전문대학의 설치 등은 모두 같은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초·중등 특수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정부가 그들의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측면까지 관심을 갖고 교육의 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다양성 있는 교육체제의 변화는 대학내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적

* 교신저자(chjj@woosuk.ac.kr)

서비스를 부단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 대학들의 책무이기도 하다(김원경외, 1995).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봄(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 특수교육연차보고서(교육인적자원부, 2006)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 2,702명의 진학률은 특수학교 졸업생은 39.8%, 특수학급 졸업생은 24.1%이다. 특히 2006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전문대학 10개교와 대학교 63개교로 모두 73개교이며, 이를 통해 입학한 특수교육대상자는 419명으로 나타났다. 1995년도에 8개 대학 113명으로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73개 대학 424명으로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6년 8월 현재 교육대학 3개교, 국립사대 3개교, 사립사대 8개교에서 185명의 장애학생이 특례 입학하여 재학중이다. 이들 장애학생들은 주로 지체부자유(뇌성마비),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7년도부터 모든 국립대학의 특별전형 실시를 적극 권장하며 대학 장애학생 복지지원실태 평가에 반영 및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체계의 대책이 수립·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학생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설비들을 준비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의 마련과 장애특성에 맞는 학습환경이나 학습과정을 별도로 계획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장애학생과 관련된 재정, 기숙사, 이동, 기술적 지원, 건강, 보험, 여가,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인사들의 정보 교환 및 협력 등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김영환·김동연, 1995).

적절한 교육이나 적절히 배려하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장애 대학생들이 과목을 수강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학내 활동 및 시설·설비 등을 이용할 때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장애를 지닌 대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많다. 대부분의 장애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캠퍼스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로부터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표출되고 있다. 즉 장애 대학생들이 겪는 대학생활의 문제는 시설·설비의 개선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이동의 불편, 학습매체의 지원과 강의 및 시험 평가시의 지원 등 학사관리, 장애학생 전담 부서의 설치, 보조 요원 제도의 도입과 개선, 장애의 이해 등을 중요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경향은 전항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서비스 항목들이 대부분이며, 장애학생 자신들도 어떤 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욕구표출이 최소한의 항목으로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과의 직접 면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 정기 국회보고 자료에서 향후 과제로 장애학생의 이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학생의 교내활동 및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촉진을 위한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제 시행,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한 점자도서, 전자도서 및 학습보조도구 등 다양한 교재·교구의 제작·보급 및 대학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보급 확대, 장애인 교원 임용확대 및 대학 장애학생도우미 확대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따라서 현재 장애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과 앞으로 장애학생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을 대학 등 모든 대학의 모든 장애 학생의 교육적 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준거자료를 개발하는 방안 연구는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일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대학생들이 달성해야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중 하나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사회적 유예기간(psychological moratorium)을 통하여 다양한 역할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환경은 이러한 역할 실험을 격려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사회적 의무나 책임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게 해야 할 것이다(손승희, 2000; 이은경, 2002). 즉 대학생 시기에는 탐색을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아고 직업에 대하여 알아가며, 그에 맞는 훈련을 받아서 직업에 입문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손승희, 2000).

이는 장애를 가진 대학생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발달적 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의 정도인 진로의식 성숙도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이다(김충기, 1983; 장석민, 1991). 이는 주로 직업성숙과 진로성숙을 같은 의미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영역에 적용해볼 때,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감은 진로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즉 정진선(2002)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성취할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과 직업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 관련 과제수행의 관계는 자기효능감과 과제수행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조아미, 2000). 또한 진로의사 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Luzzo, 1993).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하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하며,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은 성공적인 진로수행과 진로성숙을 위해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식의 특성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조사하여 향후 진로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식의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다.

둘째, 장애대학생의 진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 의사 결정 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77)의 사회학습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특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 내지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즉 자기효능감은 특정의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노력정도와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에 대한 지각이 높고 낮음에 따라 사소유형, 정서적 반응,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Bandura, 1981).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인간발달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지와 어느 정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Lent & Hackett, 1987).

일반적으로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과제에 대해 끈기 있게 도전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기는 무력하지 않다는 자신에의 신뢰감은 자립적, 적극적 행동을 추구한다.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자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면 그것에 의해 다른 면도 차츰 적극적이 된다. 이와 같이 자기 효능감은 인간생활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개인의 행동양식,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주므로 개인의 생활지도

면에서 더 없이 중요하다(김경희, 2004; 안순자, 1997).

이러한 점을 토대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영역에 적용해볼 때,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기대감은 진로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흥분의 네 가지 주요한 정보원을 갖는다. 정채기(1991)는 진로결정을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로상의 제 문제를 다루는 결정’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재창과 유계식(1996)은 ‘진로에 대한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공과 직업의 선택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심리적 기제’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특히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Hackett과 Betz(1981)가 진로발달이론에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시킨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Betz 와Hackett(1986)은 진로자기효능감을 진로선택과 적용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가대의 전체적인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Mazurek & Shoemaker(1997)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진선(2002)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성취할 수 있는 진로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하였다.

Taylor와 Betz (1983)는 일반적으로 진로선택이나 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을 제안하여 진로발달과 연관 지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 기대를 진로결정효능감으로 정의 내리고 이를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여 진로결정효능감을 수량화하였다. 이들은 연구 결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에 비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감이나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과 직업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과 진로 관련 과제수행의 관계는 자기효능감과 과제수행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조아미, 2000). 또한 진로의사 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의사결정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Luzzo, 1993).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하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하며,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은 성공적인 진로수행과 진로성숙을 위해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 진로의식성숙

진로성숙에서 진로란 직업보다 넓은 의미로서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계열이며 의식이란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의 주관적인 반응으로서 스스로의 느낌, 생각, 또는 행동

에서 깨우쳐지는 심리적 내용이다(김충기, 1981). 즉 진로성숙이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직업관의 발달,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활동 관계의 이해, 각 진로 추지에 필요한 기초기능, 학력, 기술 등에 대한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앞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며 이해하고 사고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정성숙, 1998). 즉, 진로성숙이란 진로성숙 발달의 측면에서 어느 한 개인이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직업관, 자아개념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이다(이은경, 2002). 김현옥(1989)은 진로성숙을 진로 의사 결정시 나타나는 의사결정자의 결정성, 관여성, 독창성, 성향, 타협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조민석(1991)은 진로성숙을 어느 한 개인이 진로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직업관, 자아개념 등을 포함하는 가치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성숙 발달은 직업에 대한 지식, 태도, 기능이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성숙해진다는 개념으로 인간의 총체적인 발달영역 중에서 일에 대해 배우고 직업을 준비하고 취업하고 승진하는 등의 일련의 발달을 의미 하는 것이다(장유식, 2003).

진로를 현명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능력,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자기이해와 탐색을 통하여 자신에 알맞은 진로계획을 세워야 한다(조재천, 1990).

이은경(2002)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직업을 갖는 목적, 이유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진로문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진로선택을 하는데 훨씬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직업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심도 있는 직업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합리적으로 직업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곽유석, 2001).

강무섭·박영숙(1984)은 진로결정요인을 개인적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 교육 체계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김충기(2000)는 진로발달단계에 따른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내용은 진로인식단계, 진로탐색단계, 진로준비단계로 구분하였다.

대학생은 Super의 진로발달 단계에 의하면 탐색기 후반과, 확립기 초반 초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탐색기는 선택을 점점 좁혀 나가고 확립기는 시행착오와 일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확립해나가는 시기이다. Super는 이러한 진로발달단계에 맞는 직업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탐색기와 확립기에는 흥미, 가치관, 능력 등을 알아가면서 직업목표를 만들어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짜고 점점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직업 분야를 선택해가며 그에 맞는 훈련을 받고 직업에 입문하는 과업이

필요하다. 탐색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고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며 그에 맞는 훈련을 받아서 직업에 입문을 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다(손승희, 2000).

따라서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는 진로선택이나 준비보다 현실적으로 취업지도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활동은 진로교육, 진로정보 제공, 진로상담, 취업알선 등의 제반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진로지도 기구의 조직강화와 유자격 전문 요원의 배치, 대학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산학협동체제, 교과과정의 배려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전찬화 외, 1991; 조한익, 1998).

진로성숙은 성, 연령, 학년, 지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개념, 내외 통제신념 등 다양한 변인과 관계가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다. 즉 진로성숙은 성, 연령, 지능, 학년 등의 유기체 변인과 관계가 있다. 연령과 학년이 높아지면 진로성숙 수준도 높아진다(Achebe, 1982; 강경찬, 1997). 진로성숙의 개념은 발달이론에 근거하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은 보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지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강경찬, 1997).

환경적 변인으로서 진로성숙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소득을 들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가 접촉하게 되는 자극의 질과 양이 결정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진로성숙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농촌 학생보다도 도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높고 도시에 있어서도 시내 학생보다는 교외 거주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높다고 한다(Dillard, 1976; 강경찬, 1997).

그리고 주체성 여부의 확고한 신념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진로 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았으며 진로 성숙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 특례입학 등으로 대학 진학율이 높아진 장애 대학생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일반대학생과 장애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성숙의 특성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북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 38명과 일반대학생 70명 전체 108명이며 장애대학생의 경우는 연구목적에 따라 각 대학에 등록된 장애학생 중 표

집하였으며 일반대학생의 경우에는 편의상 연구자의 소속 학교 학생 중에서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 들이나 각 대학의 장애학생관련 복지 지원단체 회원들의 협조를 구하여 연구자가 직접방문하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도움을 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Ⅲ-1과 같다. 특히 장애 대학생(38)명의 경우 남학생이 29명 여학생은 9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 12명, 청각 14명, 지체 12명이다.

<표1> 연구대상 특성

구분	성별		학년				전공			
	남	녀	1	2	3	4	인문 사회	자연	사범	기타
일반 대학생	37	33	6	7	17	40	18	28	24	
장애 대학생	29	9	9	12	12	5	14	2	16	6
계	66	42	15	19	29	45	32	30	40	6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와 진로성숙도 설문지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며 구체적인 내용 다음과 같다. 전맹 학생을 위해서는 점자로 저시력 학생을 위해서는 확대문자(15포인트)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CDMES-SF)는 Taylor와 Bets(1983)가 개발한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를 이은진(2001)이 번안한 것이다.

CDMSES-SF는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Taylor & Betz, 1983)의 50문항 중에서 Betz와 Voyten(1997)이 5개의 하위변인별로 5문항씩으로 구성한 25문항으로 되어있다.

척도구성의 기본개념은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모형에서 밝혔고 진로성숙도를 통해 측정된 5가지 진로선택 확신도에 근거하였다. 척도의 하위변인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확신이 없다(0)'부터 '매우 자신이 있다(9)'에 이르는 구간에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제시되며, 하위변인은 해당문항의 점수들을 합산한 것으로 하며, 전체 점수는 5개의 하위변인 점수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Betz와 Voyten(1997)은 신뢰도 계수를 하위변인인 자기평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대해 각각 .71, .78, .83, .77, .69로 전체 점수에 대해서는 .93의 신뢰도를 보고하였으며, 이은진(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하위변인별 신뢰도 계수가 .83, .81, .85, .84, .74, 그리고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CDMSES-SF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 이었으며, 하위변인에 따른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는 표Ⅲ-2와 같다.

<표 2> CDMSES-SF 하위변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변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a 계수
직업정보 수집	1, 10, 15, 19, 23	5	.69
목표설정	2, 6, 11, 16, 20	5	.79
계획수립	3, 7, 12, 21, 24	5	.78
문제해결	4, 8, 13, 17, 25	5	.72
자기평가	5, 9, 14, 18, 22	5	.79
계		25	.93

2) 진로성숙도 척도

Crites가 개발한 진로성숙척도(CMI : Career Maturity Inventory)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김현옥(1989)이 우리말로 번안한 태도 척도(Attitude Scale)만을 사용하였다. 태도척도는 진로선택 시 개인이 갖는 성향이나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문항 내용은 표Ⅲ-3과 같다.

<표 3> 진로성숙도 태도척도의 문항내용

범주	내용
결정성(decisiveness)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
관여성(involvement)	진로선택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
독립성(independence)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척도
성향(orientation)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의 정도
타협성(compromise)	진로선택시에 욕구와 현실을 타협하는 정도

태도척도는 전체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래 ‘그렇다’ 혹은 ‘아니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봉환(1997)이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2점, ‘다소 그런 편이다’는 3점, ‘아주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토록 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김현옥(198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평균은 .62 , 하위변인에 따른 신뢰도 계수는 결정성 .66, 타협성 .46, 관여성 .66, 독립성 .69, 성향 .65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5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CMI 태도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0이었으며, 하위변인에 따른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는 <표4>와 같다.

<표 4> 진로성숙도 하위변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하위영역	문항번호	역산처리문항	문항수	cronbach’ α 계수
결정성	1, 2, 11, 12, 21, 22, 30, 31, 39, 40	1, 2, 11, 12, 21, 30, 31, 39, 20	10	.69
타협성	9, 10, 19, 20, 29, 38, 47	29, 47	7	.42
관여성	3, 4, 13, 14, 23, 24, 32, 33, 41, 42	3, 4, 13, 14, 23, 24, 32, 33, 41	10	.72
독립성	5, 6, 15, 16, 25, 26, 34, 35, 43, 44	5, 15, 25, 35, 43, 44	10	.71
성향	7, 8, 17, 18, 27, 28, 36, 37 45, 46	7, 8, 17, 18, 27, 28, 36, 37 45, 46	10	.83
전체			47	.90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일반대학생과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식의 차이를 살펴 보기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 보기위해 성별, 연령별, 학년, 장애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통계프로그램 인 SPSS PC+/10.0으로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의식의 특성 및 그 영향 변인을 일반 대학

생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영향 변인

장애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외식의 특성은 일반 대학생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178	-0.64	0.52
연령	0.071	1.24	0.21
장애유무	0.728	2.27*	0.02
학년	0.010	0.06	0.94
R ²			0.085
F			2.41*

*p<.05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외사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8%(R²=.08)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가 진로외사 결정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외사결정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변인인 장애유무의 평균차이는 표 6과 같다.

<표 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비교

구 분	M	SD
장애대학생	5.33	1.26
일반대학생	5.98	1.35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즉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전체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정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직업정보 수집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 직업정보 수집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15	-0.49	0.62
연령	0.08	1.37	0.17
장애유무	0.77	2.14*	0.03
학년	0.01	0.08	0.93
R^2			0.083
F			2.35*

*p<.05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직업정보수집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8%($R^2=.08$)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직업정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직업정보영역에 영향을 미친 변인인 장애유무의 평균의 차이는 표8과 같다.

<표 8> 직업정보 수집 영역에 대한 차이비교

구 분	M	SD
장애대학생	5.23	1.51
일반대학생	5.93	1.49

표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직업정보 수집 영역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목표설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중 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9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 목표설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059	-0.18	0.82
연령	-0.023	0.35	0.72
장애유무	0.808	2.16*	0.03
학년	0.158	0.83	0.40
R ²			0.091
F			2.58*

* p<.05

표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목표설정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9%(R²=.09)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목표설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목표설정 영역에 영향을 미친 변인인 장애유무의 평균의 차이는 표10과 같다.

<표 10> 목표설정 영역에 대한 차이비교

하위영역	구 분	M	SD
목표설정	장애대학생	5.29	1.46
	일반대학생	6.25	1.55

표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목표설정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계획수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중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11>

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185	-0.61	0.54
연령	0.096	1.53	0.12
장애유무	0.635	1.81	0.07
학년	-0.039	-0.22	0.82
R^2			0.065
F			1.79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계획수립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6%($R^2=.06$)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계획수립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5) 문제해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중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12>

문제해결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266	-0.87	0.38
연령	0.079	1.24	0.21
장애유무	0.550	1.55	0.12
학년	0.064	0.35	0.72
R^2			.071
F			1.98

표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문제해결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7%($R^2=.07$)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의 문제해결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6) 자기평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중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3> 자기평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228	-0.77	0.44
연령	0.116	1.89	0.06
장애유무	0.869	2.53**	0.01
학년	-0.144	-0.82	0.41
R^2			.089
F			1.98

**p<.01

표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자기평가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8%($R^2=.08$)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가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목표설정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의 자기평가 영역에 영향을 미친 변인인 장애유무의 평균 차이는 표14와 같다.

<표 14> 자기평가 영역에 대한 차이비교

구 분	M	SD
장애대학생	5.57	1.55
일반대학생	6.19	1.35

표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영역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장애대학생과 일반 대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1)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15과 같다.

<표 15>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043	0.80	0.42
연령	0.006	0.62	0.53
장애유무	0.136	2.18*	0.03
학년	-0.014	-0.46	0.64
R^2			0.06
F			1.75

*p<.05

표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6%($R^2=.06$)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인 장애유무의 평균의 차이는 표16과 같다.

<표 16> 진로성숙도에 대한 차이비교

하위영역	구 분	M	SD
전체	장애대학생	2.67	0.27
	일반대학생	2.80	0.24

표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에서 일반대학생에 비해 장애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2)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진로성숙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17과 같다.

<표 17>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056	0.72	0.47
연령	0.025	1.58	0.11
장애유무	0.129	1.43	0.15
학년	-0.033	-0.71	0.47
R^2			0.04
F			1.08

표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4%($R^2=.04$)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3) 타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진로성숙의 타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18과 같다.

<표 18> 타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067	-0.45	0.64
연령	-0.035	-1.16	0.24
장애유무	-0.109	-0.64	0.52
학년	-0.039	-0.45	0.64
R^2			0.04
F			1.11

표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타협성에 미치는 영향은 4%($R^2=.04$)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타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4) 관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진로성숙의 관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19와 같다.

<표 19> 관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064	1.10	0.27
연령	0.008	0.69	0.48
장애유무	0.217	3.19***	0.001
학년	0.028	0.80	0.42
R^2			0.18
F			6.00***

***<.001

표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18%($R^2=.18$)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가 진로성숙도의 관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관여성(진로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인 장애유무의 평균은 표20과 같다.

<표 20> 관여성에 대한 차이 비교

구 분	M	SD
장애대학생	2.47	0.31
일반대학생	2.73	0.26

***<.001

표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일반대학생에 비해 장애대학생이 진로선택 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인 관여성에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5)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진로성숙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21과 같다.

<표 21>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079	0.88	0.37
연령	0.026	1.40	0.16
장애유무	0.213	2.06*	0.04
학년	-0.109	-2.07*	0.04
R^2			0.05
F			1.60

*p <.05

표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5%($R^2=.18$)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와 학년이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독립성(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척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인 장애유무와 학년의 평균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22> 장애유무에 따른 독립성의 차이 비교

구 분	M	SD
장애대학생	2.71	0.45
일반대학생	2.82	0.41

표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 진로 성숙도의 독립성은 일반 재학생이 장애대학생에 비해 높았다.

<표 23> 학년에 따른 차이비교

구 분	M	SD
1학년	2.70	0.40
2학년	2.93	0.42
3학년	2.86	0.49
4학년	2.70	0.39

진로 성숙도의 독립성은 표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서는 2,3학년이 높게 나타나고 1,4학년은 낮게 나타났다.

6)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진로성숙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24와 같다.

<표 24>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β	t	p
성별	0.050	0.55	0.58
연령	-0.002	-0.14	0.88
장애유무	0.155	1.46	0.14
학년	0.073	1.35	0.17
R^2			0.09
F			2.55*

*p<.05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귀분석에서 포함된 독립변인이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9%($R^2=.09$)로 설명되어진다.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의 차이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북지역 대학생 109명(장애대학생 39명, 일반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장애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년에 의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대학생이 비장애대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정적이다. 또한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 중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자기평가 영역에서도 장애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획수립, 문제해결은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결과는 조은정(1998)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일반적 성격 특성의 하나로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한 개인보다는 다양하고 많은 성공경험을 한 개인이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며 반면에 실패경험이 많은 경우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일치한다. 즉 장애 대학생들의 실패경험이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의 생리적 상태에 대한 지식과 주위사람들의 인식 및 평가가 긍정적 촉발자로 또는 부정적인 자극체로서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Bandura(1977)의 견해에 의하면 생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장애대학생의 경우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Bandura & Schunk(1981)와 Schunk(1981)은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노력의 양과 지속성이 증가하며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노력을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하지만 강한 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더 노력을 투여한다고 하였다. 이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목표설정 및 자기평가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경우는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있어서 긍정적인 행동수행을 이끌어 내는 특성이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행동프로그램이 대학을 비롯한 장

애학생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직·간접적인 성패경험에 의해 얻어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서 기초한다. 즉 직접적인 성취경험이 반복되면 자기효능감은 높아질 것이고 실패한 경험이 많다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다. 반복된 실패경험은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신념을 약화, 저하시킨다. 따라서 장애대학생의 실패에 대한 경험을 최소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 확신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능력과 개인적인 직업적 가치등을 효율적으로 확신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Solberg, Good, Fischer, Brown & Nord, 1995). 그러므로 장애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형성시켜줌으로서 개인의 진로방향성을 파악하고 자신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수록 앞으로 선택하고자하는 진로에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더욱 커져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변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정진선(2001)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Bores-Rangel 등(199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성별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에서도 남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은경, 2001).

그러나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12개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전경애(2004)는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높다고 하였으며 이기학·이학주(2000)의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에서만 성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두 연구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고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을 포함하고 있어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전경애(200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생과 대학생,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와 다른 결과는 이은경(2001)은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학년의 차이를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독립변인 중 장애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년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성숙도에서 일반대학생에 비해 장애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낮았다.

진로성숙도는 개인이 자신과 일·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선택시 환경에 맞게 적응하는 연속적인 발달단계상의 준비도이며 이때 각 발달단계의 발달과업 수행이 다음 단계를 이행하는 중요조건이다(이재영, 2004).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경숙(2002)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의식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진로문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이러한 신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훨씬 효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자기효능감 증진과 연관된 자기조절체계 관리와 같은 개인의 인지적 요소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장애학생들의 경우에는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한 진로탐색이나 선택 그리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제한을 가질 수 있다.

이재영(2004)은 시각장애아동과 정안아동의 진로성숙도 차이비교에서 시각장애아동이 정안아동에 비해 진로의식 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시각장애아동이 정안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통한 진로교육 기회의 부족과 여러 정보매체를 통한 정보접근에 대한 제한으로 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애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일반대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에서는 결정성, 타협성, 성향은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선택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의 정도인 관여성에서 장애유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학생이 능동적인 참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척도인 독립성에서는 장애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성은 학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3학년이 1, 4학년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의식의 성숙은 발달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령과 학년이 높아지면 진로성숙도 수준도 높아지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은 보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강경찬(199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나이는 진로성숙의 주요한 지표이다. 나이가 들수록 직업선택과정에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목표지향적으로 임하며 자신을 정확히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현명하게 직업선택과 계획에 임한다(김현옥, 1995). 그러므로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의식수준을 고려한 진로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인원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둘째, 연구대상 선정시 장애대학생의 경우 장애유형별 비교를 할 만큼 충분한 인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종교 및 전공학과에 따른 변인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종교별 학과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북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앞으로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으나 진로성숙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무섭·박영숙. (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정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4). 2004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국립특수교육원(2001). **특수학교 직업교육 담당교사 과정 연수**.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김기태(2000). 시각장애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미옥(1993). 자아정체감과 진로 성숙과의 상관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봉환·김병석·정철영(2003).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영애(1999). 일반계와 실업계 고등학생간의 직업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원경 외 6인(1996). **21세기를 향한 특수교육 장·단기 발전 방안 연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김은실·박승희(2002). **여성장애인가별에 관한 사례연구 고등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정희(1995). 중도 실명자의 직업 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주영(2003). 장애인 대학입학특별전형 제도의 문제와 개선. **현장특수교육**, 10(1), 40-51.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김헬레나(2000).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미간행 건국대학교 대학원.
- 박성원(2005). 대학생자아분화와 진로의식 성숙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변창환(1992).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서**. 경남: 경상남도교육연구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명호(2003).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과 직업선호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학·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정도에 대한 예언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상담과 심리치료**, Vol.12, No.1.127-136.
- 이에란(2003). 중도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교육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은경(200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진(2000).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재영(2004). 시각장애아동과 정안아동의 진로성숙도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임택(2002).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의식 구조.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효자(1993). 한국고등학생의 진로성숙수준향상을 위한 실험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

학교 대학원.

- 장석민·임두순·송병민(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서울: 교육개발원.
- 장유식(200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인식에 따른 진로의식의 차이.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전경애(200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전찬화 외(1991). 대학에서의 진로지도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일 연구. 학생생활 연구 제27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 정성숙(1998).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진선(2002).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및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5(1), 135-155.
- 정채기(1991).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조아미(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43-62.
- 조재천(1990).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진로결정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한익(1998). 대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 Schunk, D. H.(1981). Cultiv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96-596.
- Betz, N. E.& Hackett, G.(1986).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79-289.
- Crites, J. O.(1978). *Manual of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onterey*. CA: CBT/McGraw-Hill. Inc.
- Gelatt, H. B.(1962). Decision making a conceptual frame of reference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9, 240-245.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Jepsen, D. A., & dilly, J. S.(1974). Vocational decision-making model: A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4, 331- 349.
- Lent, R. W. & Hackett, G.(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347-382.
- Luzzo, D. A.(1993a).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6, 137-142.
- Mazurek, N. & Shoemaker, A.(1997). *Career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secondary and post-secondary service providers*.(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089 763).
- Super, D. E.(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 college Record*, 57, 151-163.

Factors related to the self-efficacies for career decision and career-maturities of college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Jin-ja Chung

Woosuk University

Lim-Mung Hee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the self-efficacies for career decision and career-maturities of college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s paper researches and analyzes the self-efficacies for career decision and the career-maturities from 109 college students (39 disabled students, 70 able-bodied students) in Jeollabuk-do.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study.

The first, the comparative study discloses that a physical disorder has influence on the self-efficacy for career decision. A disabled student shows a negative attitude about self-efficacy for career decision. A physical disorder has influence on the subordinate-spheres; to collect job information, to set a goal, and to evaluate oneself. A disabled student shows a negative attitude more than an able-bodied student does. There is no variable influence on other subordinate-spheres; to set a plan and to solve a problem.

The second, a physical disorder among independent variables has influence on career-maturity. A disabled student has a lower career-maturity than an able-bodied student has. There are no variables to have influence on a decisive attitude, a compromise attitude an inclination among the subordinate-spheres. A disabled student has a lower independent spirit and a lower participation attitude which shows the rate of an active participation in process of decision one's way than an able-bodied student has. The differences come from difference school years also.

This paper has some limited areas.

The first, there is no balance of sex and number of research object from each

school year.

The second, there is no enough number of disabled student to compare each disorder case

The third, there is a difficulty to compare each religion and to compare each school department because there is no control of variable according to religions and school departments.

key words : self-efficacies, career decision, career-maturities,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K C I